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 이유

(사무엘상 6:19~21)

19.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 벧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 이유'
"인도 독립 이후 17년 동안 자와할랄 네루는 곧 인도였다.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된 뒤로는 그가 민족주의의 불꽃을 이어갔고 인도 독립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누구도 부패시킬 수 없었고 종파를 초월했으며 비전을 지닌 정치 위의 정치인이었던 네루! 그의 위상은 너무 커서 그를 떠나서는 그가 이끄는 인도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다."라는 말은 인도의 UN사무차장이었던 샤시 타루르가 인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자와할랄 네루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분은 2006년에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루는 1937년 총선에서 전국으로 유세를 다니며 국민의회의 압승을 이끌어냅니다. 당시 8억 인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인도 동부 지방의 콜카타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차나키아'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한 원고가 기고되었는데, 당시 인도의 영웅이었던 네루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실려 있었습니다. '간디의 후계자였던 네루 총재는 관용적이지 않고 약자와 능력 없는 자들을 경멸하며, 또한 자만심이 도를 넘어서 그가 권력남용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민의회의 압승을 이끌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어내었던 이 네루를 향하여 감이 누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이 차나키아는 고대 인도의 아주 현명했던 재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희 정승이 있었다면 인도에는 차나키아를 떠올립니다. 결국 누가 그러한 필명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네루 자신이었습니다.
8억의 인구가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루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8억의 눈

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네루가 훌륭한 점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재상이었던 차나키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붙잡았습니다. 이 현명한 재상이 지금 나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8억 인구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현명한 재상의 눈에 비친 모습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에서 자신을 찾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누구의 눈에 비치는 나를 찾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고결함이 결정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의식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 아저씨에게 물건을 받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주부가 택배 아저씨 눈에 들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부의 마음속에는 택배 아저씨의 존재감(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부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부목사님과 함께 심방을 가자는 부탁을 받게 되면 화장을 합니다. 즉 화장을 안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비치고 보이든지 개의치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구경할 때에 원숭이 앞에서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원숭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려하며 예쁘게 화장하고 동물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집에서 반려 견들을 키웁니다. 부부의 이혼율은 40%에 육박하는데 그동안 먹던 밥을 주고 들판에서 뛰어놀던 개들은 생애의 반려 견으로 진입했는데 참 기이하고도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를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반려견입니다. 개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개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개를 예뻐하고 귀여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회장님을 만날 때에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회장님만을 의식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장님 앞에 존재하는 사실만이 의식될 뿐이지 회장님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회장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만 신경이 쓰게 됩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행동이 회장님 눈 밖에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마음으로 회장님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친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상대방 앞에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마리 암소에 수레를 메게 하여 법궤와 금 쥐와 금 독종 다섯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이스라엘의

벧세메스라는 성읍에 이르자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암소 두 마리를 잡아서 번제와 다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는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역본에 의한 차이로 인해 괄호로 (오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벧세메스의 상황에서는 오만 명은 불가능하므로 필사를 할 때에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성구를 옮기는 역할을 맡았고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런 불행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벧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을 하는 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죽은 다음에 할 질문이 아니라 법궤가 수레에 실려 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질문이 없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그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증거였고, 말씀의 돌판이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증거였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의 상징으로 선민의 삶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심의 증표인 법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본 행동이 무엇이 잘못 된 것일까요?

마치 회사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회장님의 머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고 어렵고 마음에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벧스메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랑도 존경도 무게감도 없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 하심을 생각했다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의 번제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 죽는 것이 번제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에 마음속으로 풍요와 다산을 붙잡았다면, 하나님 대신 밀과 보리의 수확으로 인한 풍요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궤가 나타난 것은 영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우던 현장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 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번제를 통해서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법궤의 내용물이 궁금해서 열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구경하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몸서리처집니다. 내 죗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가사는 의미적으로 크게 잘못 되었는데 주님께 존경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눈에 들고 어떻게 해야만 바뀔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마치 택배 아저씨 앞에서 화장하지 않는 주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달라'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언제 회장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얘기를 해 본적이 있고, 내 애인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모습을 주님께 예쁘게 보이도록 바꾸는 대신에,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임의대로 찢어서 넓히려고 합니다. 내가 날 봐도 더럽고 추한데 그 모습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찢어서 넓혀버립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내 모습 이 대로를 받으시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여 더럽혀졌으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나까지 받아들여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멋대로 찢어서 넓히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렇게 추함에도 받아들여 주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받아들이시려고 하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질 때에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 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감상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망각이고 큰 오류입니다. 내 모습 이 대로를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모습 이 대로는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 내 모습 이대로 죽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만 할까요?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모습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붙잡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닌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선택하신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대로를 받아달라는 것은 신앙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의 과제는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애인 앞에서 그들 앞에 비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네루는 자신을 영웅으로 보는 8억 명의 눈이 아닌, 고대의 현명한 재상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찾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눈에 비친 나를 진짜 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자녀의 눈에 비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치는 나를 나로써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그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치는 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아내와 대화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장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비굴하다고 보실까요? 용감하다고 보실까요? 무례하다고 보실까요? 무모하다고 보실까요? 하나님 눈에 비치는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죄적 기질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긴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인정하고 사장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사업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벧세메스의 주민들이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들여다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더럽고 악한 죄인으로 보신다는 것을 받아들여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번제가 답인데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므로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선민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법궤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은 돈을 사랑할지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